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8호 【루게 제23120호】주제99 (2010)년 6월 17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로동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로작연구토론회 메히꼬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과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발표 13돐에 즈음하여 4일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후안 캄보스 베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이 되는 때에 그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로작의 기본내용을 개괄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로부터 40여년간 정력적인 사상론, 실천활동을 벌리시어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 일심단결되고 인민대중에게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 세계사회의운동을 진두에서 이끄는 권위있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그의 선군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리명박연평대도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면서 나

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령도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야 한다는

필승불패의 위용을 떨치며 여러 나라에서 행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에서는 집회가, 이란과 인디아에서는 강연회,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4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집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어 있다.

행사에는 파키스탄조선전선협회

를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었다.

그이의 로작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은 조선혁명의 실천속에서 뚜렷이 파시되고있는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작에 대한 연구보급활동을 보다 광범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이러 토론자들은 로작의 상세한 내용과 로작이 가지는 리론실천적의의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토론회하였다.

파시하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을 뜻깊게 기념한다.

지난 46년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날이다.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는 사상사업의 의의와 중요성,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힌 력사적로작이다.

사상을 틀어쥐고나가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으로 일심단결되어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조선은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으로 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주체의 구상과 의도, 방식대로 당건설과 당활동을 해나가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로 이끄는 강위력한 당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있다.

이에 대하여 이란인민은 자신의 성과처럼 기쁘게 생각하며 열렬히 축하하고있다.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은 미국의 도전을 짓부시고 강성대국건설목표를 반드시 점령할것이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주체사상령》, 《조선의 대담》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계시어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자주적대가 강한 당으로,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실수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한길로 줄기차게 나아가는 강위력한 당으로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특출한 령도력은 비단 당인민만 한것이 아니다. 그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당과 친만국민의 혼연일체라는 세계정치사상 류례없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기내신문 《라 누벨 트리뷴》 5월 27일보다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그의 당건설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밝혀주신 사상론에 관한 리론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사상적기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에 선각적인 힘을 넣어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논증하시었다고 하시어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사회주의의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현명한 고전적로작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로 된다.

그것은 로작이 사회주의위업현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리론실천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의 사상정치를 철벽으로 다져나갈수 있는 목표와 방향을 밝혀준 데 있다.

또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친만국민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의 원칙과 방법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제시한데 있다.

토론자는 지난 15년간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중시로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증시해주었다고 하시어 고전적로작은 사회주의위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사상적기치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과학원 원장 태형철은 《사회주의사회의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사상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렇게 해설하였다.

사회주의사회의 사회주의사상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하게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사상이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명시하여주는 훌륭한 지도적지침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건설되고 발전하는 사회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있는 사회주의사상에 의해서만 사회주의위업은 승리적으로 개척되고 전진해나갈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다음으로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회주의주체로 만들고 정치사상적위력을 비강히 강화해나갈수 있게 하는 투쟁의 무기로 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사상을 자기 의식으로 만들 때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주체를 이루고 자기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김일성민족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로 간직하고 사회와 정전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며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며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품성은 바로 사회주의사상을 틀어쥐고 그 위력으로 혁명적 건설을 전진시켜온 우리 당의 독창적인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양정복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위대한 생활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어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사상을 중시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더욱 철저히 다져왔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위대한 현실을 펼쳐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선

한 결실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양정복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위대한 생활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어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사상을 중시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더욱 철저히 다져왔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위대한 현실을 펼쳐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선

한 결실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양정복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위대한 생활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어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사상을 중시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더욱 철저히 다져왔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위대한 현실을 펼쳐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선

한 결실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양정복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위대한 생활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어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사상을 중시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더욱 철저히 다져왔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위대한 현실을 펼쳐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선

한 결실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양정복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위대한 생활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어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사상을 중시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더욱 철저히 다져왔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위대한 현실을 펼쳐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선

한 결실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양정복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위대한 생활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어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사상을 중시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더욱 철저히 다져왔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위대한 현실을 펼쳐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선

한 결실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양정복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위대한 생활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우리 당 사상중시로신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어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사상을 중시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더욱 철저히 다져왔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위대한 현실을 펼쳐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선

영웅적위훈과 기적의 창조자들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의 전체 청년건설자들과 온 나라 수백만 청년전위들이 새로운 신심과 활력어 넘쳐 넘쳐날수있을에 노도와 같이 떨쳐나섰다.

지난 5월 외국방문의 머나먼 길에서 곁방인 러나도 루시 사이일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았으며 청년건설자들에게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정의 마음, 보답의 마음을 담아 그들이 올린 편지를 친히 보내주시고 사랑의 친필까지 보내주시는 최상의 영광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그대로 투쟁의 불씨, 위훈의 불씨가 되어 우리 선군청년전위들의 피끓는 심장에 기적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청년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이룩해나가는 위대한 선군시대의 금치없는 영예로운 새 세대들입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모든 청년동맹

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백두의 달과 배짱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나가고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맹렬하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전체 청년건설자들이 위대한 건설로의 승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길에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도록 하고있다.

또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경계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명심하고 모든 동맹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뼈와 살로 체질화하고 작극 구현해나감으로써 세상을 들었다놓는 영웅적위훈과 기적으로 보람찬 청춘시절을 빛내어나가게 하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회의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청년대중속에 들어가 화신시정치사업을 드레차게 벌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는 위대한 송풍기가 되고 가속기가 되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를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과 경제건설의 주공전진들에 파견하여 청년들과 함께 일도 하고 화신식으로 경제선동의 복소리도 힘있게 울려 이르는 곳마다에서 청춘의 기백과 열정이 남김없이 불분되게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실천으로 보답할 드높은 일념으로 지금 수많은 청년들은 《청춘을 빛내게 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강성대국건설의 제일 이르고 힘은 전투장들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 초소들에 적극 진출하여 대적적용주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고있는 사실은 청년동맹중앙위원회의 힘있는 사상교양사업이 어떤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을 키워내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풍을 펴며 휘날리며 사상의 힘, 조직의 힘, 동지애의 힘으로 막아나서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세기적인 변혁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선군청년전위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당의 령도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길에서 청춘시절의 자서전을 가장 빛나게, 가장 멋있게 새겨갈 신념과 의지로 충만되어있다.

본사기자 활철 울

혁명적량만과 전투적기백이 내려치는 선군시대 새 문화의 위력 과시

군인가족에술소조공연 평양에서 진행

【평양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에술소조공연에 참가한 부대들의 군인가족에술소조공연이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고 군인가족에술소조원들이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훌륭한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

1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작가, 기자, 언론인들과 시대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군인가족에술소조원들은 4중창 《영원한 그 미소》, 5중창 《당이며 그대는 우리의 기쁨》, 시랑송 《위대한 헌신의 찬미라》, 울려가 《다박춤쇼어 길

이 전하라》, 독창 《나는 군관의 아내라요》, 민중기악병창 《선군승리 유쾌야》, 설화 시극 《어머니의 마음》,

시야가 《하늘의 호위병 대를 이어가라》, 합창 《장군님과 함께라면》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우리 당의 군중문화예술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선군시대 새 문화의 위력을 과시하는 공연은 시작부터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출연자들은 회색의 선군명장의 품속에서 어엿한 녀성혁명가, 선군시대 제2의 나팔수로 자랑나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총창은 남편들과 한

결사옹위하며 당의 선군명도앞에서 받들어나가는 군인가족들의 송고한 정진세계와 고상한 품모를 잘 보여주었다.

군인가족들의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의의있는 사회정치문제들을 제기하고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 대중창의이야기 《애국의 산울림》 울려가 《네, 4중창이야기 《정말 좋은 바람이요》, 시와 이야기 《세대는 열백번 바뀌어도》를 비롯한 작품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혁명적량만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참신하고 격동적인 공연은 비상한 인식교양적강화력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단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명도를 총창하게 받들고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바쳐갈 절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깊은 감명을 주었다.

혁명적량만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참신하고 격동적인 공연은 비상한 인식교양적강화력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단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명도를 총창하게 받들고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바쳐갈 절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깊은 감명을 주었다.

혁명적량만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참신하고 격동적인 공연은 비상한 인식교양적강화력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단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명도를 총창하게 받들고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바쳐갈 절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깊은 감명을 주었다.

혁명적량만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참신하고 격동적인 공연은 비상한 인식교양적강화력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백두산에서 철령기슭까지!

천지개벽의 10년력사를 수놓아온 618건설돌격대의 영웅적위훈을 전한다

위대한 당과 조국이 자랑스럽게 부르고있다.

618건설돌격대! 백두산의 이름과 하나로 뭉쳐져서 조국청사에 위대한 공적을 높이 세운 영웅적인 대오의 군상이 인민의 심장을 울린다.

혁명의 성지 백두산과 삼지연지구에 천지개벽을 일으킨 그때로부터 삼수발전소와 시원한 대동로에 이어 철령기슭 고산봉에 이르는 오늘날 기적과 위훈의 기념비들을 수놓아 세우며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뜻과 높은 이상을 받들고 창조와 건설의 영웅사시기를 수놓아온 그 나날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앞장에서 울리며 민족사에 길이 남고 후손만대에 잊지 않을 새기적인 창조물들을 일깨워주는 총정교와 애국의 격사로 빛나고있다.

백두산에서 철령기슭까지!

어제는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지구에 지상락원을 일떠세우고 오늘날은 선군승리의 신악인 철령기슭에 세계가 부러워할 희한한 파수의 천리마를 펼치고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618건설돌격대여.

시대가 주고 인민이 안겨주는 뜨거운 영광과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

...

안개도 허겨워 허리에 감도는 철령의 샨갯봉에 서보라.

저 멀리로 마치 한쪽의 그림을 그려놓은것처럼 대평야의 규모조건들이 아득히 펼쳐진다.

한해전, 몇달전만 해도 저기에 있던 높고낮은 언덕들과 구불구불한 골짜기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정령이 세상에 와오자던 고산 파수능장이 아슬아슬 하는 착각에 한동안 머리돌돌헤었다.

세월을 두고 이룩된 전편이라면 우리 가슴 이처럼 흥분되겠는가.

150여일, 한순으로도 쉽게 짊어질 수 있는 다짐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수백정보의 일망무제한 평야가 펼쳐지고 거기에 미끈한 콩크리트 지대들과 낫은 사파나무들이 렬을 지어 직각직선으로 규모있게 늘어섰다.

이제는 파수원의 표상이 새로와졌다. 평지보다 구릉지대나 파일농사에 더 유리하다고 하던 종래의 상식이 뒤집어지게 되었다.

얼마 안있어 가지마다 무리처럼 달리는 우량품종의 사과들을 선자리에서 똑똑 뿜어 내게 되었고 기계와 덕을 특출히 보게 되었고 수확량도 몇배로 늘어나게 된다.

어제 날 사다리에 올라 파일을 떠던 처녀들의 모습도 볼수 없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풍요하고 희한한 청춘파원이 아닐수 없다.

봄철에 구경나왔던 마을의 늙은이들이 여기가 다 산언덕이었는데 어제는 만이 생겨났구만하고 무릎을 쳤다는 이야기. 제 고장이여 저 눈을 감고도 다닌다던 본토배자들도 이제는 들레대원들에게 물어보고서야 길을 찾곤 한다는 사실들이 예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철령기슭에 파수의 대거적이 펼쳐지고있다. 그 거창한 투쟁에서 우리의 영웅적인 618건설돌격대가 첫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2012년에 가서는 파수의 편이 종전의 몇배로 늘어나고 그 현대화수준도 세계领先水平에 올라서게 된다.

백두산을 내린 창조주의 대군단이 철령기슭에 펼치는 또 하나의 기적. 이 놀랄만 가슴후련한 화폭안에

서니 우리의 선군이 통쾌한 승리를 거둔것처럼 우리의 2012년 강성대국승리도 이미 결정된것이라는 확신으로 심장이 터질듯 격동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선군의 기치아래 창조와 변혁으로 똘똘고있는 오늘 온 나라 인민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완강한 의지로 민족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재부를 끊임없이 쌓아가고있습디다.》

지난해 6월 여기에 오시어 고산 파수능장의 정경을 한눈에 부감하시며 확실히 파일생산지로서는 적지하고 명당자리라고, 이 농장의 발전전망이 대단하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나 날이 일세를 활짝 펼치는 사파나무들더미로 오늘도 메아리쳐왔다.

철령이 떠이고 선 내 나라의 푸른 하늘, 그아래 눈부리 아득하게 펼쳐진 파수의 대지.

선군의 위력으로 일떠서는 우리의 강성대국이 어떤것인가가 여기에 하나의 축도로 집약되어있다.

선군의 운명을 지키고 조국의 존엄을 빛내이는 우리의 선군도 전투후후한것이지만 인민의 행복을 가꾸고 조국의 번영을 펼치는 우리의 강성대국건설도 역사를 류레를 모른다.

사건도 많은 철령이아래, 철령을 배경으로 하여 아득히 펼쳐지는 웅장하고 멋있는 고산파수능장의 정경하는 말그대로 우리의 선군이 얼마나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펼치는가를 보여주는 장쾌한 화폭이며 먼 후날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총대가 안아온 강성대국의 행복상이 어떤것인가를 직관적으로 읽어보게 될것이다.

우리의 618건설돌격대원들을 아저 토치를 정리하고 나무모를 심고 길을 닦는 단순한 건설자들과 고만 말할수 있겠는가.

어제는 백두산아래 사회주의지상락원의 시공주들이었던 그들이 오늘 철령기슭에 선군승리의 열매, 만복의 락원을 가꾼다는 드높은 긍지를 안고 세계에 대고 자랑할만 한 멋있어청춘파원을 건설하고있다.

백두산에서 철령기슭까지!

이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백두산기슭에서 시작하여 나라의 곳곳에 위대한 창조물들을 자기들의 이룩해낸 새기며 여기 철령기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참으로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 우리 혁명과 우리 미래를 위한 고귀한 피뎀을 바쳐왔다.

그들의 10년은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천지개벽의 눈부신 화폭으로 온 세계에 아 떴듯이 파시해온 10년이였으며 자기의 고결한 향심과 영웅정신으로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애국의 기념비를 높이 세우른 기적과 위훈의 10년이였다.

당시 부르는 제일 중요하고 책임적인 위치에 언제나 그들이 서있었다.

어제도 오늘날도 난관과 시련은 겹겹이 얹혔을 때 막아나서도 그들은 말없이, 소문없이 당의 뜻을 받들어, 조국을 번영으로 떠밀어 위대한 공적을 아로새기고있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하며 조국이 강성대국으로 비약의 큰걸음을 내짚던 2000년, 그들은 그 거창한 대전의 앞장에서

혁명의 성지건설의 첫발을 땀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된 오늘 2010년, 그들은 선군으로 열린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행복의 백과 락원을 펼쳐고있다.

강물없이, 흥분없이 바라볼수 없는 저 파수의 절경은 천만가지 행복이 꽃피는 2010년과 더불어 그리고 618건설돌격대의 창조와 기적의 10년과 더불어 이 땅에 생겨난 또 하나의 강성대국선경이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번역거리는 빈 화가를 두고 《문명》을 떠드는 나라들도 있고 《고도성장》을 자랑하며 제노라 하는 민족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 한 김일성민족의 긍지감을 안고, 사회주의의 자부심을 안고 반드시 제일 잘 살고 제일 행복하게 될 우리의 앞날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세계를 굽어보고있다.

도대체 《문명》과 《발전》을 요란하게 광고하는 자본주의가 이런 인민적이고 미적지향적이며 리상적인 창조를 생각해낼수 있겠나 실현할수 있는가.

오직 위대한 우리 당만이,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만이 이런 거창한 대용량을 내리고 실현으로 인민에게 안겨줄수 있다.

세상은 이제 또 놀라게 될것이다. 평양의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보고 《아시아의 동대》라고 찬성을 터지었던 그 격동이 그보다 무려 3배이상으로 펼쳐질 여기 고산의 파수대평야앞에서는 무슨 말로 경탄을 표시하에 못할것인가.

철령기슭에 불꽃을 닦으며 속속히 일신되는 희한한 천지개벽은 온 세상을 향하여 비약하는 조선, 강성대국의 문패를 다는 영웅민족이 터치는 선군적 단계의 격조높은 함성으로, 사회주의 만민애의 건인민적인 웨침으로 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가슴뜨거운 추억이 없이, 숨쉬며 지는 격정이 없이 그들의 지난 10년을 돌이켜볼수 없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게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벌써 10년전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돌파한 조국방우에 새 세계 번영의 년대기를 열어나갈 웅대한 구상을 펼치면서 강한 정신력의 대부대, 전투력이 강한 건설대조를 형성하여 붉은기둥의 투쟁과 창조적 진군으로 파견하도록 하시었다.

새 천년대에 들어선것만큼 이미 꾸려놓은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안양에서 보고 바로잡을것은 바로 잡고 다시 꾸릴것은 다시 꾸려야 한다. 백두산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또 훌륭히 꾸려나가는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계기로 된다. ...

10년전 그들의 가르침에서 인민은 백두산에 뿌리를 둔 우리 혁명의 군본을 다시금 똑똑히 새겼으며 백두의 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승리를 이룩할 당의 의지는 천만강에 불을 달았다.

오늘 우리는 확신있게 말할수 있다. 혁명적전군의 복속리율이 만년을 박하고 일떠서는 불패의 정신력도 백두의 산악에서 분출된다. 세계의 머리위에 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올려세우는 무궁무진한 창조력도 백두산지구의 천지개벽에서부터 발췌된다. 이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 되고 자랑이다.

지난 10년간 618건설돌격대가 맞다는 거창한 자연개조의 정복대상들은 하나같이 결사의 대격전을 각오하게 하는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사상을 단련하고 새 기적창조의 불도기니속에서 무비의 창조력을 지니였으며 주저없이, 멈춤없이 용감하게 돌진해나가는 21세기의 빨치산후손들로 영예떨었다.

백두산천지의 절제단으로부터 강제를 굽어보고있다.

도대체 《문명》과 《발전》을 요란하게 광고하는 자본주의가 이런 인민적이고 미적지향적이며 리상적인 창조를 생각해낼수 있겠나 실현할수 있는가.

오직 위대한 우리 당만이,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만이 이런 거창한 대용량을 내리고 실현으로 인민에게 안겨줄수 있다.

세상은 이제 또 놀라게 될것이다. 평양의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보고 《아시아의 동대》라고 찬성을 터지었던 그 격동이 그보다 무려 3배이상으로 펼쳐질 여기 고산의 파수대평야앞에서는 무슨 말로 경탄을 표시하에 못할것인가.

철령기슭에 불꽃을 닦으며 속속히 일신되는 희한한 천지개벽은 온 세상을 향하여 비약하는 조선, 강성대국의 문패를 다는 영웅민족이 터치는 선군적 단계의 격조높은 함성으로, 사회주의 만민애의 건인민적인 웨침으로 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가슴뜨거운 추억이 없이, 숨쉬며 지는 격정이 없이 그들의 지난 10년을 돌이켜볼수 없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게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벌써 10년전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돌파한 조국방우에 새 세계 번영의 년대기를 열어나갈 웅대한 구상을 펼치면서 강한 정신력의 대부대, 전투력이 강한 건설대조를 형성하여 붉은기둥의 투쟁과 창조적 진군으로 파견하도록 하시었다.

새 천년대에 들어선것만큼 이미 꾸려놓은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안양에서 보고 바로잡을것은 바로 잡고 다시 꾸릴것은 다시 꾸려야 한다. 백두산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또 훌륭히 꾸려나가는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계기로 된다. ...

10년전 그들의 가르침에서 인민은 백두산에 뿌리를 둔 우리 혁명의 군본을 다시금 똑똑히 새겼으며 백두의 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승리를 이룩할 당의 의지는 천만강에 불을 달았다.

인민을 위하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수놓아가신 2006년 3월 삼수명의 힘찬 행진.

이것이 야말로 총정이라고, 618건설돌격대가 당과 혁명을 위해 함으로 위대한 일을 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며 력사에 류레없는 특별감사문과 함께 크나큰 정치적인 신임, 은정어린 선물들을 안겨주도록 하시었던 2009년의 백두산 하늘길...

우리 장군님께서 백두산을 찾아가신 그 길에 불바람이 파스하게 불고 뿜았기때문에 인제 천번이었던가, 함박눈이 펄펄 내리면서 결이 헤치신 길이었다.

그 사연깊은 눈보라는 백두의 아들딸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세상을 깜짝 놀래우는 기적을 일으키어 창조하게 한 위대한 태양의 열풍이었다.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단련되고 백배해진 투철한 신념과 무비의 힘으로 천지개벽을 일으켜나가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수십명의 영웅들이 배출되고 수만명의 새 세대 청춘들이 붉은기아래 백두산의 보증을 받은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사였다.

철령기슭에 백두산바람이 그대로 불고있다. 백두산열풍은 여기서도 불굴의 정신력을 화산같이 분출시키고 또다시 기적의 신화를 창조하고있다.

바로부터 바람이 너무도 세차 풍고 산이라 부르고 눈비가 조금 내리도록 한발자국 내디딜수 없게 쌓여진 눈고장으로 일러왔다. 이 땅, 돌격대가 백두산바람을 안고있다는 말이 날만큼 세차게 불어친 칼바람, 먼지바람...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은 백두대지에서 이미 불개능한 말을 영원히 지워버린 열개의 심장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었다.

눈을 뜰수 없게 휘몰아치는 흄바람속에서 시간이 아까와 손발이 지친한자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적기가》의 노래가 저절로 나오며는 길주군대에 어린 처녀들격대원의 고백...

목숨을 걸고 진취적인 행진을 바치는 결사의 그 150여일간, 격전장에는 하루도 번짐없이 3000여개의 붉은 기발들이 휘날렸다. 그날로 《붉은기둥》였다.

그 한복한복에 위대한 장군님께 대진 총정의 맹세와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넋을 고이 싸인고 백두산을 내뿜던 그들이기에 세찬 바람에 쫓기고 눈비에 생이 바래어도 붉은기는 줄이든것이 아니라 더 많았, 더 높이, 더 멋있이 휘날렸던것이다.

기적중의 천지개척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혁명적성정의 빛나는 화폭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령도자가 위대한 혁명정신시대의 불길로 타르르코 새 세대 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자라나며 조국의 국력이 강하고 휘황찬란한 미래가 확고히 확보되었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혁명의 천만리, 번영의 천만리를 영광스럽게 이어나가는 도도하고 융용한 진군대로

속에서 백두산과 더불어 힘차게 휘날리는 618건설돌격대의 기발은 언제나 앞장에 서있을것이다.

백두산건설용사들의 일본새로 어디서나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자. 이것이 오늘 시대의 부름이고 공민적망심의 자각이다.

우리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대결을 세계앞에 섰포한 2012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그날까지는 이제 700일도 채 되지 않는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며 모든 전선에 서 최첨단을 돌파하고 인민생활향상인 길, 눈보라날리는 산발을 넘어 헤치신 길이었다.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단련되고 백배해진 투철한 신념과 무비의 힘으로 천지개벽을 일으켜나가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수십명의 영웅들이 배출되고 수만명의 새 세대 청춘들이 붉은기아래 백두산의 보증을 받은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사였다.

철령기슭에 백두산바람이 그대로 불고있다. 백두산열풍은 여기서도 불굴의 정신력을 화산같이 분출시키고 또다시 기적의 신화를 창조하고있다.

바로부터 바람이 너무도 세차 풍고 산이라 부르고 눈비가 조금 내리도록 한발자국 내디딜수 없게 쌓여진 눈고장으로 일러왔다. 이 땅, 돌격대가 백두산바람을 안고있다는 말이 날만큼 세차게 불어친 칼바람, 먼지바람...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은 백두대지에서 이미 불개능한 말을 영원히 지워버린 열개의 심장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었다.

눈을 뜰수 없게 휘몰아치는 흄바람속에서 시간이 아까와 손발이 지친한자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적기가》의 노래가 저절로 나오며는 길주군대에 어린 처녀들격대원의 고백...

목숨을 걸고 진취적인 행진을 바치는 결사의 그 150여일간, 격전장에는 하루도 번짐없이 3000여개의 붉은 기발들이 휘날렸다. 그날로 《붉은기둥》였다.

그 한복한복에 위대한 장군님께 대진 총정의 맹세와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넋을 고이 싸인고 백두산을 내뿜던 그들이기에 세찬 바람에 쫓기고 눈비에 생이 바래어도 붉은기는 줄이든것이 아니라 더 많았, 더 높이, 더 멋있이 휘날렸던것이다.

기적중의 천지개척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혁명적성정의 빛나는 화폭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령도자가 위대한 혁명정신시대의 불길로 타르르코 새 세대 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자라나며 조국의 국력이 강하고 휘황찬란한 미래가 확고히 확보되었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혁명의 천만리, 번영의 천만리를 영광스럽게 이어나가는 도도하고 융용한 진군대로

이것 최상의 질을 보장하는 기공이 적극 인반화되고있다.

저기 백두산지구의 귀중한 혁명의 만년재보들을 대대손손 영구보존할수 있는 시설들을 완벽하게 꾸려놓은것처럼 누구나 이 땅의 모든것을 제일로 여기는 열렬한 애착의 마음으로 심장을 뿜어야 한다. 백두산과 천지원은 물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도 하나같이 위대한 618건설한것처럼 무슨 일이나 조선사람의 뛰어난 지혜와 재능이면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다는 만만한 배심으로 과감히 밀고나가야 한다. 삼수명에서 발전소컴퓨터화의 새로운 본보기를 창조하고 도로건설에서 일대 혁명과도 같은 성과를 이룩한 그들의 일본새를 본받아 어디서나 최첨단들과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기이이 점령할수 있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618건설돌격대원들은 못 한게 달라고 손내밀지 않고도 무슨 일이나 훌륭히 해내는 자력갱생의 투사들이라고 높이 평가하곤 하시었다.

배낭과 삼, 곡괭이밖에 없이 적절한 창조적 전력을 총칭무엇해온 그들에게는 《밀림속의 병기장》, 《연길목판》과 같은 항일빨치산적자력갱생언어들이 생활로, 실천으로 되었고.

자기 힘, 제 머리밖에 믿을래가 없을 때 창조하는 기적이 진짜가 아니라고 자랑하는 이야기하면서 백두산지구에 혼한 부사를 가지고 도 수천세대의 살림집들을 멋들어지게 건설하였던 그들이다. 《고산명의 보배덩이》라고 불리우는 콩크리트지대생산지에서는 지금 건물부재공장들에서도 허를 찰 정도로 절이 높은 지지대들이 팡팡 쏟아져나오고있다.

이들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은 천진으로 장도리처럼 단단하고 머리를 쓰면서 자력갱생을 해도 하나부러 일, 백까지 투철하게 하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의 인내력을 총발동하여 자기에게 있는것으로 없는것을 만들어나고 부족한것을 없게도 만들자는 비상한 창조기쁨을 발휘해나가자.

백두대지에서, 철령기슭에서도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오히려 더 한강하고 기백넘친 영웅분투로 만복의 삼천리, 락원의 삼천리를 펼쳐가는 618건설돌격대원들.

불굴의 정신력으로 대고조의 열기를 화산처럼 폭발시키고 세상을 들뜨게하는 기적창조의 새 세상으로 온 나라를 흥분시키는 그들의 진군은 계속되고있다.

백두산에서 철령기슭까지!

위대한 당의 향도를 따라 바깥을 도도 부망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백두산건설용사들은 민족의 열혈을 이어주는 번영의 대동로를 조망시켜 줄까지 이어갈 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언제나 승리하여온 우리의 시선은 벌써 통일강성대국의 삼천리를 내다보고있다.

조국여여, 인민여여, 그들은 또 얼마든지 세계정인 우리의것을 창조할수 있다는 강한 자존심이 앞에도 파수능장은 물론 주변언덕에도 큰 덕을 줄수 있는 여러가지 생산지들도 일떠세우고있다. 어디든 가보아도 《천년을 책임지고 투쟁을 보증하자!》는 구호가 나날이었던 전투장들에서는 함정복도려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목청껏 웨치게 될것이다.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조혁철, 김명훈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길이 빛나리

김응우선생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조국과 민족애에 쌓은 고귀한 업적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빛을 뿌리거라니이다.

일찍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서 애국애족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여 온 만경대혁명위대한들의 숭고한 넋은 세월의 언덕을 넘어 강성대국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해가는 우리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오늘은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의 탄생 162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와 애국의 한길에 뜻이 겹쳐오신 김응우선생님의 빛나는 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희곡소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중증환아머지는 남의 묘를 파주는 산당지키었으나 나라와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는분이였다.》

조국과 민족의 력사에 삶의 뚜렷한 자욱을 남긴 사람들은 폐의없이 애국위업에 헌생을 다 바친 사람들이다.

그대조선의 풍운속에서 휘여들지도 꺾이지도 않고 한생을 고결하게 수놓아오신 김응우선생님께 가서 애국애족의 삶의 넋이 있고 있다.

1848년 6월 17일 경양중성리 (당시)에서 탄생하신 김응우선생님께서서는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가난과 싸우시었다. 김응우선생님께서서는 평양에서 사는 지주의 묘를 보아주려고 하고 산당집을 한해 얻어가지고 1860년에 만경대로 옮겨왔으시었다.

비록 소작살이와 산당지기를 하시던 처지인 선생님의 가슴속에는 조국과 향토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넋이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그이제 마을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하시던 이야기는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력사와 조국산천의 아름다움, 취위와 억압이 없는 인민의 세세상상에 대한 동경으로 충만되어있었다.

만경대는 예로부터 산천경계가 아름다와 절승으로, 평양의 자랑으로 일러오던 고장이였다.

김응우선생님께서서는 만경대를 탐내어 저마다 이 일대의 산들을 경멸하는 중기자관과 뜻을 겸용하고 중무기로 장비된 《서연》호의 전투력을 믿고 대동강을 마구 돌리쳤다. 《서연》호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대포소리, 총소리가 그칠새 없었고 피비린 살포와 락발이 강행되었다.

날강도들의 횡포무도한 행위는 조선인민의 분격을 자아내었다.

력사적응우의 의지를 힘입을 언제 한번 융단한 일이 없는 우리 인민은 의뢰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대동강기슭으로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의뢰침략자들을 반대한 우리 인민들의 자랑한 투쟁사를 전하는 미제침략선 《서연》호격침략기념비는 오만부패한 날강도무리들과 함께 싸우신 김응우선생님의 애국적정기를 오늘날도 강증있게 전해 주셨고있다.

이미천년부터 조선반도에 농독을 들인 미제는 19세기 중엽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에 본격적으로 달려들었다. 《서연》호의 침입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괴물은 침략력사의 서막이였다.

당시 미제는 침략선 《서연》호를 대동강에 침입시켜 평양지역의 근본을 흔들어놓는 음모도적질하며 나아가서 위협과 공포의 방법으로 락발적인 《무역》의 길,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보려고 획책하였다.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온 침략자들은 중기자관과 뜻을 겸용하고 중무기로 장비된 《서연》호의 전투력을 믿고 대동강을 마구 돌리쳤다. 《서연》호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대포소리, 총소리가 그칠새 없었고 피비린 살포와 락발이 강행되었다.

날강도들의 횡포무도한 행위는 조선인민의 분격을 자아내었다.

력사적응우의 의지를 힘입을 언제 한번 융단한 일이 없는 우리 인민은 의뢰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대동강기슭으로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원수적멸의 전투에 김응우선생님께서 서계시었다.

침략선 《서연》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와 두루설안에 정착하고있을 때 김응우선생님께서서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집에 있는 바총을 다 모아 강건너 공유성과 밀경봉사이에 집어넣어 놓고 돌을 굴러놓아서 침략선의 앞길을 가로막으시었다.

대동강의 흐름과 지세, 적아간의 무장투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타인신한 김응우선생님께서서는 선조들의 풍부한 전투경험을 살려 《화공전술》로 침략자들을 완전히 소탕할수있도록 발기를 내놓으시었다.

김응우선생님께서서는 결사대를 못내고 《화공전술》로 《서연》호에 대한 총공세를 들이대시었다.

드디어 《서연》호의 선체에 불이 달리고 얼마후에는 화약고가 폭발하는 요란한 폭음이 울리였다.

대동강을 《제》처럼 건너들며 갖은 못된것을 일삼던 《서연》호는 무자비한 복수의 불길속에서 끝날내 수장되야하였다.

《서연》호의 격침, 그것은 조선을 앞보고 달려들었던 미제에게 안긴 단호한 정벌이었고 김응우선생님을 선수로 한 우리 인민의 애국적전선성과 민족적기개를 남김없이 세워 한 번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력사외곡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일본에서 과거 일제의 침략력사를 외곡, 부정하는 기운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날의 침략력사에 대한 옳은 평가를 내리려는 것을 독약으로 삼아 씹어 버려 반대한 것이다.

일본의 역사외곡행위는 범죄의 역사를 옳고 정당함으로써 그리고 실지 있는 사실을 없앴던 것으로 묘사하는 등 그 내용과 심도에 있어서 류태였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외곡에서 기본은 과거 일제의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력사를 외곡, 부정하면서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는 것이다.

력사에 대한 옳바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비록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여도 그에 대해 옳게 평가하는 것은 영원히 민족의 력사에 수척과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된다. 침략전쟁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침략전쟁을 《평화에 대한 기여》로,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강점정치를 《문명발전을 도와준것》으로 거꾸로 해석평가하는 것은 후세들을 그와 같은 죄악의 길로 내모는 것과 같은 엄청난 범죄행위로 된다.

잘못된 력사를 외곡하면 정의가 아니라 부정의가 살판치게 되고 그것이 더욱 조장되게 되면 자라나는 세 세대가 그릇된 길로 나가게 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법칙이다.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라나는 세 세대에 대해 옳바른 력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제의 침략력사를 외곡, 부정하면서 그 죄를 약화시키고 지워버리기 위해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과거죄행부정책들은 정의와 인류평화에 대한 우용으로서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세기가 바뀌고 시대는 달라졌지만 죄많은 과거력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일본집권계층은 더욱 표리부동하게 행동하고있다. 세계여론이 일본을 가리켜 뒤를 돌아볼 줄 모르는 나라, 범죄를 저지르고도 얼굴 한번 붉힐 줄 모르는 무퇴한들이 모여사는 집단으로 평하는것은 그에 대한 호된 비판이다.

죄를 지었으면 사죄하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개별적인 사람들과사이의 관계에서는 물론 나라들사이에서 건전한 국가관계를 수립해 나가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규범으로 된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저지른 엄청난 죄행을 외곡, 부정하면서 그에 대해 사죄하는것을 국력 반대하고있다.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원한은 하늘높에 사무쳐있다. 그만큼 과거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은 크다. 우리 인민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짐승처럼 다루면서 노예와 같이 부려먹었으니 일제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첫날부터 무지막한 인사와과소통치로 우리 인민에게 여러모로 노예화하고있었다.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파괴, 약탈하는 일제침략자들의 잔대미로의 악행은 하여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사람모살 인간생지옥으로 화하였다.

일제가 우리 인민을 얼마나 가혹하고 야만적으로 취급하였는가를 하는것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전락시킨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들대다수가 일제의 야수적 만행으로 나서자란 고향향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산실고 물살은 이국땅에 묻히고말았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수십만명에 달하는 문화재를 약탈해갔다. 지어 신 조들의 묘까지 파괴하고 거기에 있던 물품들을 로략한는 천하의 악독한 짓을 했다. 내성들이 애용하는 반지와 머리띠 그리고 가정들에서 사용하는 숟가락과 반그릇까지 약탈해간 일제와 같은 침략자, 약탈자를 아직 세계는 알지 못하고있다.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의해 우리 인민은 제 나라, 제 땅에서 살면서 우리 나라 말과 글을 제대로 배울수도 쓸수도 없었으며 지어 제 이복조차 마음대로 부를수 없었으며 일제가 저지른 죄행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평화호호자》로 둔갑하여 유엔안보리사회 상임이사국자리를 따내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있다. 그렇게 되면 전법국의 오편도 쉽게 벗어날 수 있고 그들은 타산하고있다. 유엔안보리사회 상임이사국자리를 따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수록 일본반동들의 역사외곡, 부정행위는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외곡의 책사를 외곡, 부정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에는 피해국들에 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고약한 심보가 작용하고있다.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저지른 범죄는 그 무엇으로써도 계산할수 없는 엄청난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어떻게 하나 과거청산을 회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벽도 뚫고나서 내미는 식으로 과거죄행을 한사코 외곡, 부정해나가고있다. 그들의 사고관점은 자국의 과거죄행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이로부터 일본은 과거죄행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세월이 흐르면 일본의 과거죄행이 흐지부지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거를 되풀이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이것은 군국주의침략사상이 골수에 찬자들의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해외침략과 잇닿아있는 일본반동들의 역사외곡책동을 내버려두면 아시아인민들은 지난날보다 더 큰 불행에 당할수 있다.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은 일본반동들의 역사외곡책동을 위험한 제침기도의 일환으로 보고 그를 강력히 규탄배격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범죄의 책사를 외곡하면서 제정을 추구할수록 국제사회의 더 큰 규탄배격을 받으며 고립과 파멸의 운명에 처하게 될것이다.

《천안》호사건은 조선의 원수들의 도발

로씨야와 베네수엘라에서 항의행동 진행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을 야기시키고있다는것과 관련하여 로씨야 울라지보스프로우주제 미군총영사관과 남조선피괴총영사관앞에서 3일과 4일 항의시위들이 진행되었다.

시위들에는 로씨야연방방위군 당 연해방위원동맹, 로씨야연방방산부의 청년동맹, 울라지보스프로우주위원회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기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의 함께 있다》, 《미국은 불장난을 하지 말라, 전쟁을 도발하지 말라!》라는 구호판들을 들고 《천안》호침몰사건은 조선의 원수들의 도발이라고 단죄하면서 사건에 계획된 이 사건은 오직 조선을 암살하려는 목적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오바마와 리명박을 형성한 그림판들을 붙여주고 만미, 반권주호들을 체지었다. 시위들에서는 조선에 대한 위협공감을 증진할것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은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한 남조선민중의 《조사결과》라는것은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암살하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지적한 도발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의 격분과 규탄을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기발과 《프러부나 보블라르》 5월 30일부터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을 규탄하는 선전화

를 싣고 그것을 까라까사시내 여러곳에 배포하였다. 선전화에는 조선로동당 마크와 오각별 그리고 공화국기와 베네수엘라공산당 기발을 배경으로 멸적의 총을 연설처럼 들어잡은 조선인민 군인과 노동자, 지식인, 근로녀성의 모습이 형성되어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파의 편대성》, 《제국주의와 남조선피괴들의 위협책동에 맞서》라는 글방이 쓰여져있다.

한것도 문제이지만 남조선사병

46명씩이나 수장된것이다 이상한 현상이다. 함선폭발후 남조선군수는 즉시 잠수함수색정을 파견했다고 하지만 실지 어떤 함정도 이 수역에 파견된 것이 없다. 미국의 한 판리가 《천안》호침몰은 국제적으로서도 확실히된 사건이 아니라고 한것도 의문스럽다. 사방정문가를 역시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해 많은 의혹을 표출하였다.

이날 미국의 AP통신과 여러 서방언론들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스웨디에신문 《프로페레탄》 제 2호는 《반공화국소동의 숨은 목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초기에 《천안》호침몰과 관련하여 어떤 공작가능성을 배제하거가 갑자기 그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넘겨주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함선침몰의 책임을 모면하고 반공화국침략사야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남조선집정세력의 저명한

우리 나라 사진, 미술전람회, 영화감상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우리 나라 사진, 미술전람회 7일부터 12일까지 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진행되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화예술부문을 지도하시는 사진들과 우리 나라 주제예술의 발전을 소개하는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마케도니아 스코페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마케도니아 스코페문화정보센터 국장은 개막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문화예술은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조선인민은 참다운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있다.

마케도니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진, 미술전람회가 성공적으로 개막됨을 축하한다. 전람회는 마케도니아인민이 조선과 조선인민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이러한 문화교류가 두 나라 사이의 판매발전에 적극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전람회기간 수많은 인사들과 각계층 군중이 전람회를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전시품들이 모두 최고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네메를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크리테리아영화관에서 5월 29일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의 생명》, 《홍길동》, 《조국해방전쟁》 제 1부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암스테르담시민들을 비롯한 관람자들은 영화를 보고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헬링만호텔그룹 사장 헬링만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선 영화를 보기 위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조선의 참모습을 알고싶어하는 유럽사람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암스테르담중합대학 학생 알렉세스는 최근 미국과 서방언론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거짓선전을 로골화하고있는데 이처럼 훌륭한 조선영화를 볼수 있게 된것은 행운이다. 앞으로 네메를란드와 유럽에 조선의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영화감상회를 주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림락터 책임자 반달은 관람자들이 영화를 보면서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는것은 미국이 아무리 조선에 대해 비방중상해도 진실성을 가리울수 없나다는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하는 현대생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블스까TV방송 우리 나라 교예를 소개

5월 29일 블스까TV방송이 제 33차 동맹방로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한 평양모란봉교예단의 공연을 소개하였다. 방송은 우리 나라 배우들이 출연하는 공중교예 《3단공중전회비행》의 전과정을 방영

하면서 조선의 공중교예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발휘되는 배우들의 기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보유하고있는 《특허기술》이라고 강조하였다. 방송은 공연이 끝난 후 전체

관중이 일어나 배우들에게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는 장면, 우리 나라 교예단이 지난 시기 여러 국제무대에서 상을 받는 장면들 등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오랜 시간 방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연환경을 떠나서 인류의 생존에 대해 혼합수 없다. 인류는 필수적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의 생존활동을 벌려나가고있다.

인류의 생존을 담보하여주는 자연환경은 지금 급속히 파괴되어가고있다. 그리하여 인류의 생존과 발전이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다.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지구온난화, 이상기후현상에 대한 환경변화 등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토지의 사막화가 다그쳐지고있다. 사막화는 우선 토지를 황폐화시키고있다.

많은 지역들에서 사막화의 영향으로 토양구조가 파괴되고 토양의 영양분이 상실되고있다.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토지의 사막화로 지난 40년동안 세계농경지의 약 3분의 1이 황폐화되고 10억명 이상의 인구가 사막화의 영향으로 생활상고를 겪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다. 토지의 사막화로 인한 이주민수는 약 2400만명에 달하고있는데 사막화가 계속되면 2050년에 가서 그 수는 2억명으로 늘어날것에 예상된다.

남조선침탈사건을 계기로 벌린 미국과 남조선의 반공화국소련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전정침략사건의 일환이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의안을 지체없이 받아들여 사건의 흑백을 밝히며 조선반도정세를 전정정경으로 몰아간 장본인으로서의 죄행을 인정해야 할것이다.

충분한 토지라고 한다. 한편 사막화의 영향으로 강줄기와 물도량이 마르고 저수지가 메워지고있다. 수많은 강과 호수들이 말라 버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관개용수부족으로 판수를 하지 못하고있다. 특히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사막화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접해있으면서 광범한 수역을 자랑하던 차드 호가 지구온난화현상과 주변 나라들의 대대적인 물결 조성 및 호수물량용 등으로 여러 사막화되어가고있다. 1963년에 이 수만만년만 차드호는 그 면적이 20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호수에서 살던 생물들과 호수의 수질도 사막화되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호수 주변 나라들에서는 농업용수부족과 먹는물고임, 각종 질병들의 발생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있으며 호수에서 물고기잡이가 살아가던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멸치 없이 차드 호가 사하라사막에 잠겨버릴것》이라고 하고있다.

현실은 가뭄을 방지하고 토지의 사막화를 막는것이 인류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막화와 가뭄을 방지하는 사업

을 한시도 미룰수 없는 문제로 내세우고 산림보호와 산림조성, 관개공사를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고있다. 올해 《세계사막화 및 가물방지》의 날이다.

1994년 12월 유엔총회 제 49차회의에서는 1995년부터 해마다 6월 17일을 《세계사막화 및 가물방지의 날》로 정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해마다 이날에 즈음하여 사막화와 가물방지를 위한 주제를 정하고 국제적으로 여러 회의들과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올해 《세계사막화 및 가물방지의 날》의 주제는 《물자원의 날》과 《사막화》이다. 이 주제에 따르는 사업과 행사들이 이날을 맞으며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는 1994년 6월 17일 블스까에서 채택된 《가물과 사막화현상》을 국한하며, 특히 아프리카에서 사막화방지를 위한 유엔협약》에 2003년 12월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서기구는 토지사막화를 방지하고 가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인식제동활동, 학술토론회,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있다.

국제사회의 모든 선진들은 토지사막화와 가물방지, 환경보호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라 명 성

미국의 무력적침략이 전쟁의극기

위협과 비방선전은 미국이 군사적침략을 벌리기 전에 앞서 진행하는 교활한 전쟁수법의 하나이다. 미제는 침략수익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미자적인 나라들에 대한 허위보락선전을 끈질기게 강행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되게 만들고서 그들 《명분》으로 군사적간섭과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다.

1991년 페르사 만전쟁때를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이 전쟁을 일으키기 1년전부터 이라크에 대한 각종 헛소문을 내돌렸다. 미제는 이 나라의 《인권》침해 등을 가지고 허위선전을 폄했으며 화학무기를 생산하려 한다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표출하였다. 이러한 끈질긴 선전전으로 이라크는 《대량살륙 무기》를 제조하는 《위험한 나라》, 《문제성 있는 국가》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미제는 이라크의 군사력과 군사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한 저들의 주장을 실현케 옮기는데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해놓았다. 그리고는 이라크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고 다국적부대를 발동하여 페르사만전쟁을 치르었다.

미제는 《핵위협국》이라는 구실밑에 2003년 이라크를 무력으로 쫓아올때 때에도 그와 같은 수법을 썼다. 2001년 11월 당시 미국 대통령은 국무장관에게 이라크에 전쟁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그때부터 미국은 이라크전쟁과 관련한 작전계획수립을 다그쳤다. 동시에 백악관, 국방성, 국무성, 중앙정보국이 총발동되어 이라크전쟁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들을 조작, 류포하였다. 그에 따라 미제는 이라크의 《핵무기생산에 관한 우라늄과 원실분리공용 공장도살륙미수입금지법》을 내돌렸으며 2002년 12월에는 이 나라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조작하여 공개했다. 미당국자들은 그에 대한 정보자료 거짓 거짓이라는것을 변히 알면서 도 사담정권을 제거하자면 다른 수단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욱 과장, 확대하여 국제적으로 여론화하였다.

2003년 2월 5일 미국무장관 포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변변하였다. 《미국정보기관들의 수중에는 이라크가 무기사찰인원들과의 협조를 거절하고 사용금지된 무기를 숨겨두었음뿐 아니라 테로조직과 결탁되어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다. 이라크의 《위협》은 목전에 다달았다. 그러기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하도록 유엔결의를 즉시 채택해야 한다.》 미제는 이처럼 변절한 허위

여러 나라 신문, 통신들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폭로

미국과 스웨디에신문, 통신들이 남조선피괴함선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미국신문 《보스턴 헤럴드》 5일부는 글에서 남조선의 《천안》호침몰사건이 많은 의문점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함선에 대한 《북조선의

모락선전을 진행하여 국제여론을 위어잡은 다음 유엔의 사건

을 위어잡은 다음 유엔의 사건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던것이다. 이에 대하여 로씨야신문 《브라우다》는 《2003년은 미국의 거짓말로 가득한 해다시말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가짜수익이 판을 치고 자행사가 진짜범죄처럼 화려하게 치러지고 가짜대통령이 군사작전의 가짜결속을 선포한 다음 개선을 부른 해였다.》고 강조했다.

허위와 날조설을 내댜러 이라크를 침략한 미호전세력은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수법을 적용하려고하고있다. 미제는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짜놓고서 그에 앞서 남조선피괴들을 내세워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고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기를 위한 허위보락선전에 발판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미제의 허위보락선전은 곧 군사적침략의 전주곡이다.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강도성은 전례로 전할수 없다. 그들에게서 변하는것이 있다면 침략수법이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지고있는것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모락적인 거짓주장과 허위보락을 내댜며 때때로 반드시 침략과 간섭이 따라다닌것을 명심하고 그에 각성있게 대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종 손

반이스라엘시위

수단의 하르툼에서 최근 국제연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각계층 시민 수백명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단의 하르툼에서 최근 국제연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각계층 시민 수백명이 참가하였다.

더욱 고조되는 미군기지철수기운

일부에서 미군기지철수를 요구하는 기운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군의 압력에 굴복하여 후엔미미군기지를 현대에 이설하기로 한 일본당국의 굴욕적인 태도미군기지 철수기운은 오끼나와 주민들은 물론 광범한 일본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5월 23일 오끼나와현 소재지에서 후엔미미군기지의 현대이설을 반대하는 항의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참가자들은 현지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엔미미군기지를 팔출한 현대에 이설하려는 정부의 책동을 규탄하였다. 한편 이날 수시령의 현의회의원들이 의회 청사앞에서 통성투쟁을 벌리면서 후엔미미군기지 현대이설계획을 당장 철회할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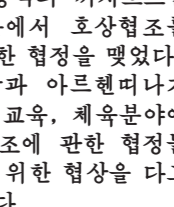
지난 5월 16일에는 오끼나와현민 약 1만 7000명이 《인간사건》형태로 미군후엔미기지를 폐쇄시키고자 하는 시위를 벌였다. 오끼나와현에서 이와 같은 대중적인 항의행동이 있는



남아프리카의 프레토리아



남아프리카의 프레토리아



남아프리카의 프레토리아

합 조

캄보자와 인도네시아가 2일 두 나라사이의 사중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사법부문에 초상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또한 헝가리와 아르헨티나가 3일 기술, 교육, 체육분야에서의 쌍무협조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다그치고 있었다.

한수 있다. 오끼나와에 미군기지가 계속 존재하고 미군이 등지를 높고있는 한 이곳 주민들은 그로 인한 불행과 재난을 면할수 없다. 오끼나와현 주민들은 후엔미미군기지는 물론 이곳의 모든 미군사기지를 현판으로 밀어내기 위한 투쟁을 확고히 벌리고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미군사건의 요구와 압력에 늘리미군기지철수를 요구하는 현지주민들을 포함한 광범한 일본인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위위를 맞추는 길로 나갔다. 결국 이전 하토야마정부는 총재의 입장에서 물러나 후엔미미군기지의 현대이설을 상진과 합의하는 데로 이끌어냈다. 사실 이곳 주민들은 언제 무슨 분봉을 당할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환경에서 불안하게 살고있다. 미군기지철수를 요구하는 오끼나와현 주민들의 대중적인 시위와 집회는 자기들에게 불의되는 수치를 고발, 불행과 고통을 더이상 감수하지 않겠다. 오끼나와현 주민들은 미군

합 조 캄보자와 인도네시아가 2일 두 나라사이의 사중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사법부문에 초상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또한 헝가리와 아르헨티나가 3일 기술, 교육, 체육분야에서의 쌍무협조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다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미군사건의 요구와 압력에 늘리미군기지철수를 요구하는 현지주민들을 포함한 광범한 일본인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위위를 맞추는 길로 나갔다. 결국 이전 하토야마정부는 총재의 입장에서 물러나 후엔미미군기지의 현대이설을 상진과 합의하는 데로 이끌어냈다. 사실 이곳 주민들은 언제 무슨 분봉을 당할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환경에서 불안하게 살고있다. 미군기지철수를 요구하는 오끼나와현 주민들의 대중적인 시위와 집회는 자기들에게 불의되는 수치를 고발, 불행과 고통을 더이상 감수하지 않겠다. 오끼나와현 주민들은 미군